



Focus sector: 에너지 산업

- 탄소 배출과 지역사회의 영향을 고려한 ESG 리스크 관리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되며 다수의 소송 등 분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에너지 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에너지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ESG 관련 분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 이슈: #ESG경영 #기후변화 #에너지접근성 #지역사회 인권

1. 배경

에너지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환경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ESG 이슈를 마주하게 됩니다.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탄소배출량 감축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에너지의 특성상 적정 가격으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인프라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2. 에너지 산업 관련 분쟁사례

(1) 환경 관련 분쟁

• 5대 석유회사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세계 5대 석유 가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대형 석유회사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 경감 기금 (abatement fund)를 조성할 계획인데, 주 정부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들이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오랫동안 은폐해왔다.
-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초래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주정부가 모든 금액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석유가스 회사들이 탄소배출 저감을 광고에 이용하였음에도 대체연료에 대해 소극적으로 투자를 해오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였다.

- **석유회사들에 대한 멀트노마 카운티의 소송**

미국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가 대형 석유회사에게 2021년 열돔 현상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억 달러 (한화 65조 6천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석 연료 회사들이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숨겨 배출한 탄소가 열돔을 유발 및 악화시켰으며, 이는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만 69명을 사망하게 만든 폭염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 덩어리가 반구 형태의 지붕에 갇혀 계속해서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현상.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이 더워져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석유회사에 대한 이탈리아 주민들의 소송**

해수면 상승,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이탈리아의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그린피스 이탈리아, ReCommon) 이 이탈리아 소재 석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자신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수십년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내에서 기후변화를 이유로 사기업이 소송을 당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로마 법원에 석유회사의 생명, 건강, 사생활, 그리고 가족 관련 인권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위 회사가 기후변화 전략을 수정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5%로 절감할 것과 대주주 역시 파리협약에 맞추어 기후변화 전략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영향 관련 소송

- **에너지 회사에 대한 캔자스 주의 소송**

캔자스 주의 법무장관은 2021년 겨울 폭풍우 기간에 M사가 캔자스 주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에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매입함으로써 천연가스의 시장 가격을 조작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가스 가격이 폭등하여 캔자스 주 내에 있는 에너지 회사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5천만 달러가 넘는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M사는 태풍 전에 비해 10%가 넘는 추가 수익(net trading revenues profit)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에너지 회사에 대한 우간다 주민들의 소송**

프랑스 에너지기업이 진행하는 대형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해 우간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들이 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간다 킬레가 지역에서 추진한 유전 개발 사업, 탄자니아 항구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으로 인해 우간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간다 주민들은 개발 사업 탓에 3~4년동안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당했으며, 생계 유지 수단을 빼앗겨 식량 부족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 설립 과정에서는 인근 마을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보장과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한 실사 의무법을 위반하여 토지와 식량에 대한 권리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¹ 뜨겁게 달궈진 공기 덩어리가 반구 형태의 지붕에 갇혀 계속해서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현상.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이 더워져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3. 국내기업의 유의점

에너지 산업의 기업들은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활동 시에도 공급망실사의무의 이행을 통해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SG 관련 소송은 단순한 일차적 손해가 아닌, 파급효과에 대한 것인만큼 그 규모가 크고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 영향 식별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미국변호사 E. synn@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e@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수석전문위원 E. in kim@yoonyang.com

장슬기 T. (+82) 2 6182 8365
 변호사 E. skjang@yoonyang.com

양희 T. (+82) 2 6003 7674
 컨설턴트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T. (+82) 2 6003 7470
 컨설턴트 E. khji@yoonyang.com